

# 추억의 영화·청바지... '광주다움' 축제 호평

### 충장축제 성료...5천여명 거리 퍼레이드 눈길 유관기관 연계 프로그램 다채 '동반상생' 맞춘

올해 충장축제는 '추억의 영화'를 주요 콘셉트로 내세우며 방문객들에게 진한 감동과 추억을 선사했다. 개막식엔 유명 영화의 삽입곡을 오케스트라 연주와 함께 화려한 퍼포먼스 공연을 선보여 관객들의 눈과 귀를 즐겁게 했다. 올해 처음 선보인 '충장 시네마 콘서트'는 짜임새 있는 무대와 뮤지컬 배우들의 수준 높은 공연으로 영화의 감동을 그대로 전달하며 관객들의 심금을 울렸다.

9일 동구에 따르면 지난 3일 개막한 '제16회 추억의 충장축제'가 4일간의 추억여행을 마치고 6일 폐막식과 함께 대장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축제는 '추억, 세대 공감'을 주제로 국립아시아문화전당과 충장로·금남로. 예술의 거리 일원에서 6개 분야 46개 프로그램이 펼쳐졌다. 당초, 2-6일까지 5일 간 개최 예정이던 축제는 제 18호 태풍 '미탁'의 영향으로 개최를 하루 미뤄 3일부터 일정을 시작했다.

이번 축제에선 '테마의 거리'가 흥행몰이에 한몫했다. 지난해 이어 신 서석로에 조성된 테마의 거리는 소위 '인중상'이 문화가 된 젊은이들에게 '핫플레이스'가, '그때 그 시절'을 기억하는 중장

년층에게 추억을 소환하는 매개체가 됐다.

250m 길이에 좌우로 뻗어 들어선 23개 추억의 장소는 자녀들과 함께 나온 가족단위 방문객을 비롯, 친구·연인들로 축제기간 내내 북적였다.

젊음과 자유를 상징하는 청바지도 이번 축제의 인기 아이템으로 통했다.

청바지 맵시를 뽐내고 나온 방문객들은 내 인생 프로필 사진 찍기, 청바지 리폼 경연 등 다양한 이벤트를 즐겼고 청바지 서포터스도 곳곳에서 깜짝 퍼포먼스를 선보였다.

축제의 꽃 '거리퍼레이드'는 광주 시민들의 참여가 돋보였다. 특히, 광주 5개 자치구를 포함해 5,000여명의 시민들이 함께 꾸며 눈길을 끌었다. 퍼레이드 전후로 선보인 '칠석 고싸움놀이'와 '대동한마당'은 충장축제가 왜 '광주다움'을 품은 축제인지 다시 한번 각인 시켰다.

아울러, 지역 유관기관들과 연계한 프로그램도 다채롭게 선보여 지역사회와 동반상생·성장을 꾀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과 손잡고 지역 내 사회적 경제기업 51곳이 참여하는 '광주 사회적 경제 장터'와 'ACC브리지 디자인마켓'을 개



제16회 '추억의 충장축제' 하이라이트인 거리 퍼레이드 공연이 지난 5일 금남로 일대에서 열렸다. /동구청 제공

최, 지역민들과 소상공인들의 연결고리가 됐다. 또, 수협 전남본부 주관한 '광주전남 수산물 직거래장터'는 제철 수산물을 방문객들에게 합리적 가격에 판매하고, 장어 맨손잡기 등 다채로운 이벤트를 마련해 즐거움을 선사했다. 이밖에 광주 도시철도공사와 협력한 '도시철도 프리섹션 이벤트', CGV 광주 금남로와 함께 한 '추억의 영화관' 등도 인기몰이를 했다.

동구는 이번 축제기간을 '아시아 데이'로 지정해 태극·필리핀 등 현지 공연팀의 퍼포먼스를 하루 종일 선보이고, 다문화가족 합동 전통혼례식, 다문화 단체 공연 등 '다문화 어울림 한마당'을 개최했다.

아시아 음식문화지구에서 아시아 켈치 & 푸드 페스티벌과 연계해 각국 음식체험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선보이며 방문객들의 좋은 반응을 얻었다. 여기에, 수유

실과 유모차·휠체어 대여, 물품보관함, 휴대폰 충전소, 수화·통역사 배치 등 방문객 편의를 위한 다양한 시설을 갖춰 '대한민국 최우수 문화관광축제'에 걸맞은 준비는 호평을 들었다.

임택 동구청장은 "성공적인 축제에 힘을 모아주신 지역민과 관계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며 "내년엔 새로운 옷으로 갈아입고 올해보다 변화된 모습으로 돌아오겠다"고 말했다. /고광민 기자

## 지투리 소식

### 조선대와 치매예측검사 협약

광주 동구는 조선대학교 치매연구센터와 함께 최근 분청 접견실에서 '인공지능 기반 치매예측검사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9일 밝혔다.

체계적 치매예측과 예방관리를 위한 이번 협약은 ▲치매 고위험군 발굴을 위한 선별검사 협력 ▲선별검사 결과 정밀검사 대상자 연계 및 검사지원 ▲치매 조기진단·예방을 위한 공익사업 및 시범서비스 실시 등을 주요내용으로 담았다.

이에 따라 구는, 앞으로 조선대 치매연구센터와 협력해 치매 조기예측과 예방관리를 위한 지역기반 의료시범서비스 사업을 중점 추진할 방침이다. 특히, 선별검사 시 희망자들을 대상으로 치매위험유전변이검사(구강상피세포)를 진행하고, 선별검사 결과 정밀검사 대상자로 판명될 경우 MRI검사 및 PET촬영 등을 무료로 지원한다.

### '우리마을 백세친구' 발대식

광주 동구는 최근 구청 6층 대회의실에서 어르신들의 돌봄사각지대 문제와 여가활동 부족 등을 해결하기 위한 '우리마을 백세친구' 발대식을 개최했다고 9일 밝혔다. 임택 동구청장을 비롯해 복지기관·단체 관계자, 어르신 등 500여명이 참석한 이날 행사는 '제23회 노인의 날'을 맞아 기념식과 함께 발대식 및 축하공연 등을 진행했다. 지난 2017년 WHO 고령친화도시 국제네트워크 회원도시로 가입한 구는 '백세안심·문화도시'를 목표로 관련사업을 꾸준히 추진 중이다. 이번 사업 역시, 지역 어르신들이 자신들이 살고 있는 마을에서 친구들과 함께 안심하고 활기찬 노후를 보장하기 위한 '동구형 신지역사회돌봄 안전망 구축' 사업 일환으로 추진된다.

### 복지가이드라인 관련 전수조사

광주 동구는 저소득계층의 복지기본 실태 파악과 의견수렴 등을 위해 법정저소득 3,892가구를 대상으로 '2019년 동구 기본 복지가이드라인' 관련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다음달(11월) 4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전수조사는 노인·장애인·아동 등 가구 특성별 기본인류·식생활 관련 설문뿐 아니라, 맞춤형 교육과 문화프로그램 수요조사를 진행한다.

구는 그 동안 민선7기 출범과 함께 민·관 사회복지 전문가 18명으로 구성된 TF팀을 꾸려 수 차례 회의와 주민 의견수렴, 분야별 담당공무원 의견 청취 등을 거쳐 올해 전국 지자체 최초로 '2019년 기본복지 가이드라인'을 수립했다.

## 체납 지방세 올해 말까지 20억 징수

### 압류·공매 통해 체납액 추정

광주 동구는 올해 하반기 지방세 체납액을 일제 정리한다고 9일 밝혔다.

구는 지난 1일부터 올해말까지 지방세 체납액 34억여원을 대상으로 일제정리에 들어갔고, 징수목표는 20억여원이다.

따라서 구는 '지방세 체납액 정리단'을 꾸려 고액체납자를 집중관리하고 ▲전국재산조회를 통한 부동산·자동차·채권 등 신속 압류 ▲고질·상습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영지활동 강화 ▲자동차·부동산 압류재산 적극적 공매 등을 중점 추진한다. 특히, 고액·상습체납자를 대상으로는 명단공개·금융신용제한 공공기록정보 등록 등 법의 허용범위 내에서 모든 제재를 동원하고, 체납차량 번호판 상시영치반을 운영해 단속을 강화한다. 지방세 50만원 이상 체납자에게 금융재산 압류를 추진하고, 3회 이상 30만원 체납자에 대해서 관허사업 제한도 가한다. /고광민 기자

## 초등 고학년 코딩 프로그램 호응

광주 동구는 관내 초등학교 고학년을 대상으로 진행한 '찾아가는 어린이 교육'이 성황리에 마무리했다고 9일 밝혔다.

앞서, 구는 지난 8-9월말까지 분청 별관 드림스타트교육장과 관내 지역아동센터 3곳을 돌며 방과 후 특강프로그램으로 코딩교육을 진행했다.

초등학생 눈높이에 맞춘 스토리북과 인플러그드북, 워크북 등을 활용하고 교육용 로봇 '알버트'를 통해 코딩프로그램을 구현하는 참여형 수업으로 어린이들의 뜨거운 호응을 얻었다.

이번 수업에 참여한 한 어린이는 "알버트를 집으로 데리고 가서 계속 공부하고 싶다"고 말했다. /고광민 기자

## 다문화가족 찾아가는 인권교육 실시

### 이달까지 인권감수성 향상 목적 인형극 등 관련 프로그램도 진행

광주 동구는 이달말까지 관내 다문화가족, 자연마을 주민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인권교육'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현재 동구 관내 다문화가족은 272세대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구는 다문화가족에게 감성적으로 다가갈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하고, 교육접근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자연부락을 직접 찾아 주민들의 인권감수성 향상을 목적으로 교육을 진행한다. 앞서, 구는 지난 9월까지 전문강사를 초빙해 화산·녹동·질전마을 등 마을 7곳을 순회하며 주민 120여명을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실시했다.

이달엔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이용하는 다문화가족 혼인이주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10일부터 학운동과 지원1동 자연마을 주민을 대상으로 교육을



동구는 이달말까지 관내 다문화가족과 자연마을 주민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인권교육'을 추진한다. /동구청 제공

진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아이들을 대상으로 광주 자치구 중 처음으로 인권인형극과 다양한 인권 관련 프로그램도 진행키로 했다.

충장축제 기간 중 2회에 걸쳐 관내 초등학교·어린이집·유치원생 등 170여명을 초청, 교육극단 파랑새 인권인형극 '새집이와 달팽이'를 선배 아동과 좋은 반응을 얻었다. /고광민 기자

**Cubicle Innovation**  
We will create a futuristic toilet culture

## 화장실칸막이의 모든것 중원큐비클과 함께

**화장실 칸막이 40년 노하우로 직접 생산 및 전문시공업체**  
다년간의 관공서, 기업체, 상가, 병원, 학교, 어린이집, 휴게소 등  
시공 및 판매 경험으로 화장실을 한 차원 업그레이드 해 드립니다.

- 직접생산을 통한 저렴한 가격
- 철저한 품질관리를 통한 제품 신뢰성
- 생산자 직접 시공을 통한 완벽한 시공

**전국 어디든 불러만 주시면 바로 달려 가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전화주시면 성실히 답해 드리겠습니다.**

**CUBICLE**  
[주]중원큐비클

T : (062)525-6993~4  
F : (062)525-3832  
(우)61900 광주광역시 서구 하남대로502번길 20-8

M : 010-3647-3832  
E : jwc3832@nate.com